

통곡 (慟哭)

하늘을 우러러
 울기는 하여도
 하늘이 그리워 울음이 아니다
 두 발을 못 뺀 이 땅이 애달퍼
 하늘을 흘기니
 울음이 터진다.
 해야 웃지 마라
 달도 뜨지 마라

-시: 이상화-

시 낭송 정 삼 일(사인)



강미희

경남 통영에서 나서 12세의 나이에 일본 국제무대에서 독무로 데뷔하였다. 경성대학교에서 현대 무용(예술대학 무용학과)을 전공했다. 졸업 후 춤무용단 창단단원으로 활동하며 3대회장을 역임한 강미희는 이후 일본에 유학, 다나카 민 등 세계적인 전위무용가로부터 공동체 수업을 받았다. 현재는 미아아트댄스컴퍼니 대표로 국내,외 활동하는 강미희는 동서대학교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연기과와 경성대학교 교육학과에 출강하며 후학을 양성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.

이상화 시인의 영혼의 절규가 담긴 통곡의 시(詩)에서 명감을 얻어 바이올린 현의 선율과 즉흥적인 춤사위로 그의 영혼을 불러내어 세상과 교감하는 독무이다.

